어… 어… 논두렁 밭두렁 '불조심'

전남 하룻동안 35건… 산불 번져 큰일날 뻔

광주·전남지역에서 천변 둔치와 논두렁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면서 천변 둔치를 산책하는 시민들이 늘어가고 있는데다,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황이어서 조그만 불이라도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지거나 인명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5일 하루 동안에만 농촌지역 논·밭 소각으로 빚어진 산불 관련 출동 건수는 35건에 달한다. 올 해 들어서는 70건이 넘는다.

이날 오후 3시 30분께 화순군 한천면 한 야산에서 불이나 편백나무 700여 그루 등 0.5ha를 태우고 1시간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마을 주민이 인근 논두렁에서 소각 작업을 하다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또 오후 1시 20분께 영암군 서호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소나무 등 0.3ha를 태우고 1시간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주민 김모(58)씨가 인근 밭두렁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바람에 불길이 번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날 낮 12시 50분께 함평군 학교면의 한 야산에서도 주민이 인근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이 나 1500㎡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전남도 등이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가 병충해의 천적인 거미 등을 제거해 영농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음에도 불구, 논·밭두렁 태우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도 올해 발생한 화재 200건 중 광주천 등에서 쓰레기·잡풀 등을 태우다 불티가 옮겨 붙어 16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잡풀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들은 "22일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화재 위험도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최근엔 하루 동안 5~10여건의 잡풀 화재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오후 3시께 광주시 동구 학동 광주천변 부근에서 초등학생들의 불장난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0여분만에 진화됐다.

또 23일 오후 6시께 광주시 남구 방림동 광주천 둔치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500㎡의 잡풀 등을 태우고 30여분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시민이 버린 담뱃불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피해가 없는 쓰레기·잡풀 화재나 자체적으로 진화된 화재의 경우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화재 발생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날 현재 광주와 여수, 광양, 순천, 구례, 곡성, 화순, 보성 등 8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기상청측은 "봄철에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이 많으므로 산불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널브러진 쓰레기 25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동곡에서 나주시 금천면 방면 49번 국도변에 운전자들이 새벽에 버리고 간 쓰레기봉투와 생활쓰레기 등이 방치된 채 널브러져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KT 직원 40억대 상품권·현금 사기 잠적

전남고객본부, 고소장

KT 직원이 업자들로부터 40억원대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을 가로챈 후 잠적했다.

KT 전남고객본부는 25일 대리점 관리직에 있던 김모(45)씨가 상품권 할인업자 등으로부터 거액의 상품권과 현금 등을 받아 챙기고 지난 1월 말 잠적,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KT측은 대리점 계약과 관리를 담당했던 김씨가 상품권 대금 지급과정에서 임의로 KT 대표이사 명의의 인감을 도용해 업자들에게 어음을 발행해온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이 김씨에게 사기당했다고 주장하는 금액만 총 40억원에 달한다.

KT 전남고객본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대리점과 회사 사이에서 휴대전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는 없다.

김씨가 업자들을 속이고 개인적으로 거래를 해온 것 같다"면서 "김씨는 지금 직위 해지 상태"라고 덧붙였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나원참 〈8761〉 김종두

만취 치과의사 사망사고 낸뒤 차량 300m 이동

'뺑소니 미적용' 논란

정지 자국없어 도주혐의 적용 가능

경찰 "신분확실, 합의돼 불구속"

새벽 시간 만취한 치과의사가 낸 교통사고 사망 사고〈광주일보 14일자 6면 보도〉와 관련, 경찰의 뺑소니 혐의 미적용과 불구속 수사 방침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광주북부경찰은 애초 치과의사 한모(47)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사고 현장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점을 근거로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던 중 "사고 목격자의 진술과 주변의 CCTV, 차량 상태 등을 종합해 볼 때 뺑소니보다는 음주상태에서의 사고 충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방향을 선회했다.

반면 한씨가 만취상태로 운전했다고는 하지만 운전 중 브레이크를 잡은 흔적(스키드 마크)없이 사고현장서 300m 가량 떨어진 도로까지 이동한 점을 감안하면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일부 경찰관들은 사고 발생 후 차량이 300m이상 이동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는데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이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음주단속에 적발된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사망사고를 냈는데도,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신분이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져 있는 상황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를 한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또 이번 사고와 관련, 25일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실험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가출팸' 만들어 15차례 절도

광주동부경찰은 25일 광주시 일대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절도)로 김모(14)군 등 7명을 붙잡았다.

김군 등 7명의 가출청소년은 지난 6일 새벽 4시40분께 광주 동구의 한 식당에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금품과 배달용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8초만에 수천만원 귀금속 강탈

나주서 금은방 3인조 도둑… 광산구 강도 이틀만에, 경찰은 뒷북만

광주·전남지역에서 금은방 절도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경찰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25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3시 20분께 나주시 이창동 한 금은방에 3명의 괴한이 침입,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주인 부부가 자고 있는데도 미닫이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단 18초만에 진열장에 있는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대범함을 보였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새벽 6시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한 금은방에서도 수억원대 귀금속이 털렸다. 금은방 주인은 "출근했을 당시 철제 셔터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진열대와 금고는 파손돼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누군가 매장 주인의 보안카드를 훔쳐 보안 시스템을 해제한 뒤, 20여분 내에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뾰족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8일 새벽 광주시 남구 방림동에서 발생한 금은방 절도 사건도 8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했지만 범인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용의자 인상 착의가 담긴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주민 신고에 의존하는 등 공개 수사에 나섰을 뿐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 25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한 금은방에서 50~6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선물을 고르는 척하다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등 금은방을 상대로 한 절도 사건이 빈발하면서 치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세열기자 hot@

북구 중흥동 2400여가구 일시 정전

25일 오후 2시43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일대 2427가구가 일시 정전됐다.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정전 발생 2분 뒤 이 중 2346가구에 대한 전력공급을 정상 재개했고 19분 뒤에 나머지 81가구에도 전력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지중변압기 내부의 선이 일부 타 정전이 됐고 2~19분 내에 전력공급을 재개했다"며 "기자재 과열로 인해 탔을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지하철역 폭발물 오인 경찰출동 소동

쌍나팔

○…지하철역에 놓인 물건을 폭발물로 오해해 경찰관과 소방관이 출동, 내용물을 확인하는 등 소동.

○…25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10분께 광주지하철 소태역 출구 근처 의자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상자가 놓여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 구조대 수십여명이 출동해 검색했으나 대보름맞이용으로 보이는 찰밥과 부럼이 들어 있었다는 것.

○…현장에 출동한 한 구조대원은 "최근 폭발 협박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며 "폭발물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안도.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